

모심으로 하나되는

제159주기
대신사 순도추모식 및
순도선열 합동위령식

포덕 164(2023)년 3월 10일

 천도교중앙총부

제159주기
대신사 순도추모식 및
순도선열 합동위령식



포덕 164(2023)년 3월 10일

 천도교중앙총부

차례

식순	03
추념사	04
천덕송_제19장 대신사 환원기도가	10
천덕송_제14장 위령송	12
性靈出世說(성령출세설)	14
위령문	19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대신사 약력	22

식순

1. 개 식

1. 청수봉전

1. 분 향 (집 례)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전봉독_ 성령출세설

1. 위령문 낭독

1. 천덕송 합창_ 제19장 대신사 환원기도가 / 1절-2절

1. 추념사

1. 천덕송 합창_ 제14장 위령송 / 1절-2절

1. 분 향

1. 심 고

1. 폐 식

추 념 사

수운대신사님의 성령이시여!

오늘 대신사님 순도 159주기를 맞이하여 저희 동덕들은 옷깃을 여미며 충심으로 추모하오니 감응하시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순도순국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저희 동덕들은 그동안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며 선열들의 순도 정신을 깊이 새기고자 하오니 감응주소서!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수운대신사님께서서는 보국안민하고 광제창생할 대도를 구하기 위하여 10년간 주유천하 하였으나 세상에서는 그 도를 구하지 못하시

고, 용담정에 돌아와 불출산외 맹세 후 죽음을 불사한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여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개혁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후천운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천 운수의 겁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대세에 어두웠던 당시 기독교자들은 수운대신사님을 좌도난정으로 모함하여 참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도통을 이어받으신 해월신사님 시대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인들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며 개혁세상을 위해 순도하셨습니다. 특히 신미년(1871), 임진년(1892), 계사년(1893)의 교조신원운동, 그리고 갑오년(1894) 동학혁명의 과정에서 수십만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보국안민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의암성사님과 춘암상사님 시대에도 갑진개혁운동과 기미3.1 독립운동, 그 이후의 독립투쟁과 멸왜기도운동, 광복 후의 남북분열 저지운동 등에서 수십만 선열들이 순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서 K-컬처로 세계 문화 선도국이 되기까지 순도·순국하신 선열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습니까!

천도교단의 헌신과 희생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천도교가 서 있는 자리는 너무나도 작고 외진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소중한 지구가 자연재해로 온 생명이 힘들어 하는 이 때에, 광제창생의 천명을 받은 천도교의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 보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경하는 동덕 여러분!

기미 3·1독립운동 이후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는 자주독립과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의 길을 급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단의 현실을 볼 때 수운대신사님이 가르치셨던 다시 개벽의 길, 보국안민·광제창생·지상천국의 큰 길을 제대로 걸어왔는가를 반성해 봅니다.

오늘의 합동위령식은 지금도 우리의 정신과 마음속에 살아 숨 쉬

는 스승님과 선열들의 뜻을 세상에 밝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거룩한 지상천국 건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데 더 한층 매진하기로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먼저 교단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시대적 과제인 생명살림운동과 민족적 과업인 평화통일운동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포덕방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스승님과 순도순국 선열들의 희생의 뜻을 빛나게 하고 나아가 교단의 중흥을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수운대신사께서 유시에서 ‘주사고형 역유여(柱似枯形 力有餘)’라고 하신 것처럼 순도 하신 후에도 사후 법력으로 해월신사님을 위기에서 구하시고, 후학들의 성령과 융합하여 수많은 이적과 영적을 보이시며 법신장생(法身長生)의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울님이 정하신 오만년 천도교 대운을 굳게 믿으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대도 발전에 헌신합시다!

스승님과 순도순국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지금 전국적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천도교가 중흥과 혁신의 기운을 찾아내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운을 열어 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후학들은 지극한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수도 정진하여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오니 스승님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시옵소서!

스승님과 선열들께서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큰 길에 나설 때에 일신의 안위를 염두에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일신의 고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경천명 순천리하는 천도교인으로서 자천(自天)을 자신(自信)하고 자력을 길러 대도의 일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하여 교단중흥과 통일대업이 성취되는 그날에, 수운대신사님께서 일찍이 “춘삼월 호시절에 또 다시 만나 볼까”라고 노래하셨던 것처럼,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온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수운대신사님 순도 159주년 추념식과 순도순국 선열들의 합동위령식을 봉행하면서 다시금 포덕광제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용맹정진으로써 나아가고자 맹세하오니,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순도순국선열들의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포덕 164년 3월 10일

천도교 교령 박 상 중 심 고

제19장 대신사 환원기도가

1. 포 - 덕 - 오 년 갑 자 삼 월 십 일
 2. 형 창에 문 은 피 갑 만 인 을 늘 려 때
 3. 해 월 신 사 불 러 만 부 인 하 시 니
 4. 한 그릇 청 수 로 영 결 하 시 니

1. 대 신 사 더 운 피 뿌 리 시 - 다
 2. 대 신 사 절 명 이 스 물 두 - 번
 3. 순 순 하 신 그 효 유 간 포 절 하 시 - 다
 4. 굳 고 굳 은 그 맹 세 포 덕 광 - 제

1. 천 고 에 한 끼 치 대 구 장 대 야
 2. 쌀 쌀 코 귀 먹 은 세 상 사 람 들
 3. 등 명 수 상 - 에 무 채 협 극 이 요
 4. 슬 프 다 회 구 름 채 색 무 지 개

1. 한 울 님 과 신 인 을 물 랐 던 - 가
 2. 과 - 천 - 통 곡 도 들 지 못 한 가
 3. 주 - 사 - 고 - 형 역 지 유 여 - 라
 4. 너 왜 우 리 수 심 을 자 아내 는 고

후렴

거룩하옵신 수운대신사

높고높으신 후천천황씨

명을주시고 천도바꾸어

억조창생을 살리시 - 네

제14장 위령송

1. 장 평 갱 즐 많 은 사 략
2. 함 지 사 지 출 생 들 아

1. 한 을 님 을 우 러 러 서
2. 보 국 안 민 어 찌 할 꼬

1. 조 화 중 에 생 겼 으 니
2. 대 저 인 간 초 목 군 생

1. 은 덕 - 은 고 사 하 고
2. 사 생 재 천 아 닌 런 가

1. 근 본 조 차 잇 을 소 나
2. 불 시 풍 우 원 망 해 도

1. 불 망 기 본 하 었 어 라
2. 임 사 호 천 아 닌 런 가

후렴

호 박 - 한 이 세 상 에

불 고 천 명 하 단 말 가

가 련 - 한 세 상 사 람

경 천 순 천 하 었 어 라

性靈出世說(성령출세설)

1. 宇宙元來靈之表顯者也

우주는 원래 영의 표현인 것이니라.

2. 靈之積極的表顯 是有形也 靈之消極的攝理是無形也 故無形有形也 卽靈之現勢力 潛勢力之兩轉輪也

영의 적극적 표현은 이것이 형상있는 것이요, 영의 소극적 섭리는 이것이 형상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형상이 없고 형상이 있는 것은 곧 영의 나타난 세력과 잠겨 있는 세력의 두 바퀴가 도는 것 같으니라.

3. 茲有一物從之而忽有靈性之活動 是以靈之結晶 生物之組織也 以物之組織 又生靈之表顯也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 문득 영성의 활동이 시작되었나니, 이것은 영의 결정으로써 만물의 조직을 낳은 것이요, 만물의 조직으로써 다시 영의 표현이 생긴 것이니라.

4. 故 靈與世不過同一理之兩側面而已

그러므로 영과 세상은 같은 이치의 두 측면일 따름이니라.

5. 大神師 嘗 呪文之意解釋曰「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是 指稱以靈之有機的表顯 道破人乃天之定義也

대신사 일찌기 주문의 뜻을 풀어 말씀하시기를 「모신것이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하셨으니, 이는 영의 유기적표현을 가리킴이요, 사람이 곧 한울인 정의를 도파한 것이니라.

6. 故性靈根本出世的矣 靈移而別無物 物移而別無靈 更無世 究竟靈而需世 世而得靈 物物各遂其性 是神妙之性靈活動 應於萬機萬相 與器數應於出世調攝 譬如同一雨露 桃結桃實杏結杏子 是從千差萬別之植物 結千差萬別之果實

그러므로 성령은 근본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니라. 영을 떠나 별로 물건이 없고 물건을 떠나 별로 영이 없고 다시 세상이 없으니, 마침내 영은 세상을 마련하고 세상은 영을 얻은 것이니라. 물건마다 각각 그 성품을 이룬 것은 이 신묘한 성령의 활동이 만기만상에 응한 것이요, 기국대로 세상에 나 조섭하는데 응함이니, 비유하면 같은 비와 이슬에 복숭아는 복숭아 열매를 맺고, 살구는 살구 열매를 맺나니, 이것은 천차만별의 식물에 좇아 천차만별의 열매를 맺음과 같으니라.

7. 同一性靈 無量大德之妙法 順化大天大地之各個差別 鳶飛於天 魚躍於淵

같은 성령에 헤아릴 수 없는 큰 덕의 묘한 법이 대천 대지의 각개 차별을 순히 화하여, 하늘에 솔개가 날고 못에 고기가 뛰는 것이니라.

8. 然而人是萬物中 最靈者萬機萬相之理 總俱體者也 人之性靈 是大宇宙靈性純然稟賦同時 萬古億兆之靈性 以唯一系統 爲此世之社會的精神也

그러나 사람은 이에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 만기만상의 이치를 모두 한 몸에 갖추었으니, 사람의 성령은 이 대우주의 영성을 순연히 타고난 것임과 동시에 만고억조의 영성은 오직 하나의 계통으로서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 된 것이니라.

9. 神師 受人乃天之心法 定向我設位之祭法 是表明宇宙之精神 卽億兆之精神也 共更明定億兆之精神 卽我一個體之精神也

신사께서 사람이 곧 한울인 심법을 받으시고 향아설위의 제법을 정하시니 이것은 우주의 정신이 곧 억조의 정신인 것을 표명하심과 아울러, 다시 억조의 정신이 곧 내 한 개체의 정신인 것을 밝게 정하신 것이니라.

10. 此以一層狹義而言之 前代億兆之精靈 爲後代億兆之精靈之點
祖先之精靈 與子孫之精靈 融合表顯 先師之精靈 與後學之精靈融合
永遠出世的活動有之也

이를 한층 뜻을 좁히어 말하면 전대 억조의 정령은 후대 억조의 정령이 된다는 점에서,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표현되고, 선사의 정령은 후학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영원히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함이 있는 것이니라.

11. 又悅 大人之德 與天地共活用靈性 故天與吾神師 但有有形無形之別 觀其靈性的契機則全爲同一範圍 同一活動 同一表顯也 是天即人人即天之所由來 天地萬物共順應 時代億兆同進化故 其心法決非超人間的 全然合世間的出世間的

또 하물며 대인의 덕은 천지와 더불어 같이 성령이 활용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한울과 우리 신사는 다만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는 구별이 있을 뿐이요, 그 영성의 계기로 보면 전혀 같은 범위에서 같은 활동이 같이 표현되는 것이니, 이것은 한울이 곧 사람이요, 사람이 곧 한울인 관계이니라. 천지 만물은 한가지로 순응하여 시대억조와 같이 진화하므로, 그 심법은 결코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요, 전부 세간과 합치된 것이요, 세간에 나타난 것이니라.

12. 余嘗 梁山修煉之時 豁然得「昔時此地見 今日又看看」之詩句 是大神師之昔時余之今日 性靈上同一心法立言

내가 일찌기 양산 통도사에서 수련할 때에 활연히 「옛적에 이곳을 보았더니 오늘 또 보는구나」하는 시 한구를 불렀으니, 이것은 대신사의 옛적과 나의 오늘이 성령상 같은 심법임을 말한 것이니라.

13. 大神師 既爲性靈出世矣 一切物物心心 皆不無此性靈之出世的表顯也

대신사는 이미 성령으로 출세하셨으니 일체의 물건마다 마음마다 다 이 성령의 출세한 표현이 아님이 없는 것이니라.

14. 然而吾人 以此覺得 未覺得之所以 全關係性靈之修煉不修煉 若以吾人各受大神師之心法而性靈修煉之結果 一朝豁然境到之則 茲覺大神師之心法 一切宇宙之心法而從以覺自己之性靈 卽大神師之性靈不生不滅 無漏無增 是大性靈之根本的出世也

그러나 우리 사람이 이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바는 전혀 성령을 수련하고 수련치 않는 데 관계한 것이니, 만약 우리가 각각 대신사의 심법을 받아 성령수련한 결과가 하루 아침에 환한 경지에 이르면, 이에 대신사의 심법이 일체 우주의 심법임을 깨닫고 따라서 자기의 성령이 곧 대신사의 성령임을 깨달을 것이니, 불생불멸하고 무루무증한 것은 이것이 큰 성령의 근본적 출세이니라.

위령문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오늘 3월 10일은 대신사께서 순도하신지 15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하여 순도순국하신 스승님과 선열들을 추모하는 합동 위령식을 봉행하오니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대신사께서 후천의 새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무극대도를 창명하신 후 선열들께서는 수도와 포덕에 전념하시면서 온갖 고초를 감수하며 이 땅에 무극대도를 펴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운이 여의치 못하여 거룩한 뜻을 세상에 펴지 못한 채 참형, 교형, 전사, 옥사, 익사, 장사, 총살 등 참혹하게 순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만 한 몸과 한 집을 위하여 살다가 안방에서 편안하게 죽어도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거늘 선열들께서는 우리의 무극대도가 인간의 행복과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어 도탄 중에 헤매는 창생을 구원하려다가 소중한

생명을 바치셨으니 그 숭고한 뜻과 불멸의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바야흐로 ‘산하대운이 진귀차도’하는 시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한울을 공경하지 않고 한울의 이치를 순하게 따르지 않는 각자위심으로 살아간다면, 사회는 사회대로 질서가 문란해지고 혼란과 병폐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요, 따라서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생명체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시천주의 참진리를 갈구하며 인내천 정신을 밝히는 햇불이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열들의 순도가 헛되지 아니한 덕화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울님께서 사람을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서 만기만상의 이치를 모두 한 몸에 갖추어 화생시켜 육신을 마련한 것은 바로 스승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열들의 성령이 우리 후생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불굴의 정신을 받들어 후천의 새 세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수도와 포덕에 힘쓰면서 대도의 목적인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건설의 대원을 달성할 것을 선열들의 영전에 맹세하오니, 성령이시여 굽어 살피시옵고 명우(冥祐)가 있어지이다.

포덕 164년 3월 10일

천도교중앙총부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대신사 약력

- 포덕전 36년(1824) 10월 28일 경주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에서
부친 경주 최씨 옥과 모친 한씨 사이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제선(濟宣) 자는 도언(道彦) 이시다.
- 포덕전 29년(1831) 모친 환원하시다.
- 포덕전 20년(1840) 부친 근암공 환원하시다.
- 포덕전 18년(1842) 울산의 밀양 박씨와 혼인하시다.
- 포덕전 17년(1843) 집이 불타 용담정으로 이사하시다.
- 포덕전 16년(1844) 주유천하에 나서시다.
- 포덕전 6년(1854) 주유천하를 마치고 울산 호암동(일명 여시바윗골)에
초가 삼간을 짓고 구도의 수행에 들어가시다.
- 포덕전 5년(1855) 3월에 호암동에서 을묘천서를 받으시다.
- 포덕전 4년(1856)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수행하시다가 숙부의 환원을 직관하시고
47일만에 하산하시다.
- 포덕전 3년(1857) 천성산 적멸굴에서 다시 49일간의 기도를 마치시다.
- 포덕전 1년(1859) 10월에 경영하던 철점이 파산되어 집과 땅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용담으로 돌아오시다.

포덕 1년(1860)

2월에 입춘시를 지으시며 구도의 결의를 다지시다.

이름 제선을 제우(濟愚)로, 자 도언을 성묵(性默)으로,

호를 수운(水雲)으로 고치시다.

4월 5일 용담에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다.

5월 용담가를 지으시다.

포덕 2년(1861)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자 어진 선비들과 민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7월에 포덕문, 8월에 안심가를 지으시다.

11월에 유생들이 서학으로 몰아 관으로부터 탄압이 있자

제자 최중희를 데리고 남정길에 오르시다.

12월 호남지방 남원 교룡산성 隱跡庵에 은거하시다.

포덕 3년(1862)

1월에 권학과와 논학문을 6월에 수덕문과 몽중노소문답가를 지으시다.

7월에 경주부 청송으로 돌아와 박대여의 집에 머무시다.

9월 많은 제자들이 출입하자 경주영장은 대신사를 체포, 이 소식을 들은 도인 5-6백명이 모여 영장에게 항의하자 5일만에 석방하다.

10월 14일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통문을 띄우시다.

11월 9일 흥해 매곡동 손봉조의 집으로 옮기시다.

12월 26일에 연원의 효시가 되는 접주(接主)를 최초로 임명하시다.

포덕 4년(1863)

3월 9일 용담정으로 돌아와 필법을 지으시다.

4월에 좌잡을 지어 강수에게 주시다.

6월에 개접(開接)하여 많은 도인들에 가르침을 베푸시다.

7월 23일 파접(罷接)하시다.

이날 최경상에게 해월(海月)의 도호를 지어주시고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하시다.

하순에 도덕가를 지으시다.

8월 초순에 흥비가를 지으시다.

8월 14일 최해월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시다.

11월 불연기연을 지으시다.

12월 10일에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운구에게 피체되시다.

대신사와 이내겸은 서울로 압송되고 나머지 30명은 경주옥에 하옥되다.

12월 20일 과천에 당도했다가 철종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경상감영에 환송되시다.

포덕 5년(1864)

1월 6일에 대구 감영에 수감되시어

20일부터 혹독한 신문(訊問)을 받으시다.

3월 10일 좌도난정률의 누명을 쓰고

대구 관덕당에서 참형을 받아 순도하시다(41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ndogyo.or.kr e-mail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

